

노인소비자의 의료기기 이용 실태 및 구매 후 행동

복미정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Use and Post-purchase Behavior of Medical Instruments for Elderly

Bok Mi Jung

School of Human Ecology, Ulsan Univ.

1. 서론

고령화 사회의 가속은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를 증폭시켰다.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831.7억불로 추정되며, 그 중 우리나라는 30.2억불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 이상의 소비층으로 인해 의료기기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노인소비자의 의료기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기 구매 후 느낌, 지출 비용과 인지정도, 가족간의 갈등,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의 노인들로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2.0k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T-검증,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3. 조사결과

3.1. 의료기기 이용실태

현재 노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부항기(19.5%)였고, 다음으로 안마기(17.1%), 찜질기(13.4%), 혈압계(11.9%), 건강팔찌와 물리치료기(각각 9.2%), 혈당계(7.9%), 족욕

기(6.9%), 지압기(4.7%), 산소발생기(0.2%)의 순이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이 개방되면서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 구매가 용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사용방법이 간단한 부항기, 안마기, 찜질기 등의 기기는 가지고 있었다.

구입한 의료기기의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필요할 때 사용한다(60.0%)가 가장 많았고, 1주일 1-3번(17.5%), 1일 1-3번(14.1%) 의료기기를 사용하였고, 구입 후 전혀 사용하지 않는(6.2%) 경우도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사용기간은 1-3년 미만(36.2%)이 가장 많았고, 5년 이상(22.9%), 3-5년 미만(20.3%), 6개월-1년 미만(13.3%), 3개월 미만(7.4%)의 순으로 노인의 2/3 가량은 비교적 한번 구입한 의료기기를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노인의 1/2정도가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같은 주변인의 권유(51.3%)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 외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39.6%)였다. 의료기기 구입 장소로는 의료기기 상사(76.0%)가 대부분이었고, 마트(14.0%), TV홈쇼핑(8.1%), 인터넷(1.8%)이었다. 의료기기를 구입한 사람은 노인 스스로(48.0%)가 1/2 정도였고, 다음이 자녀(36.6%), 배우자(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기 구매 후 행동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기 구매 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구입 후 느낌과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비용 인지는 연령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한 가족간의 갈등 경험은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의료기기 사용 후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의료기기 구입 후 느낌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에게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p < .05$), 반면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1년 평균 22만900원, 없는 노인이 11만5600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높았다($p < .01$). 양정선(2007)의 연구에서 의료용품기구 지출비용은 월평균 6,949원으로 나타나, 이 수치를 근거로 1년 평균비용을 산출해보면 8만3,388원이었다. 따라서 울산지역 노인과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인지는 연령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70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60대, 55-59세에 비해 의료기기 가격이 비싸다고 인지하였다($p < .05$).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한 가족간의 갈등은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비교적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가족간의 갈등이 높은 편이며, 55-59세 잠재노인들은 이들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초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노인이 중졸, 고졸이상의 노인들 보다, 자녀 수가 4명 이상인 노인이 3명 이하의 노인보다 의료기기 구입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의료기기 이용실태 및 의료기기 구매 후 행동에 관해 분석하였다.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자산축적을 이룩한 고령세대가 구매잠재력이 높은 소비자층으로 등장하였고, 동시에 웰빙 트렌드에 힘입어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와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울산의 노인들도 부항기, 안마기, 찜질기, 혈압계 등의 간단한 의료기기를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구입한 의료기기를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 또한 1년 이상으로 장기적이었다. 주로 주변인의 권유나 노인 스스로 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의료기기 구입으로 보다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며, 1년 평균 의료기기 지출 비용은 배우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들었고, 고령 노인이 젊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가격이 비싸다고 인지하였다.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이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한 가족 간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의료기기 지출에 따른 부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의료시설을 갖춘 지역내 노인복지회관의 확충이 요망된다.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5개의 노인복지회관과 문수실버복지관 만이 있고, 이것조차도 신체적으로 열악한 노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구비한 노인전용공간을 만든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수혜균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양정선,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1호, pp.1~13, 2007.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년 의료기기산업 분석보고서, 2007.